

# 현대공간에 나타나는 역공간(逆空間)의 특성연구\*\*

- 헤르조그 & 드 무론의 작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minal Spac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ed on of Herzog & de Meuron's Architecture -

**Author** 박화영 Park, Hwa-Young / 정회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 석사과정  
원유진 Won, Yu-J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A variety of attempts for trend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uniform styles and a fixed dichotomous structure and thoughts, have been made. This research aims to apply and analyze the application of concepts of the liminal spac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based on the destructive inclination of post-structuralism and the theories of philosophers. Space of the past was recognized for a long time focused on functions and styles that support the building. In modern and contemporary spaces, however, the boundary of contemporary space has been blurred with the mingling of cultural phenomenon. In other words, new architectural approaches of expression have been attempted such as structure, styles and materials, in combination of diversified concepts. And, the concept of liminal space is useful to identify the multi-layered and fluid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various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n the liminal spac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based on Herzog and de Meuron's architecture. The result will help us understand the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minal space that belongs nowhere among their architectural spaces. The analysis of the asces of Herzog and de Meuron will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ing new possibilities of modern space and contemporary space of the future.

**Keywords** 헤르 조그 & 드 무론, 현대공간, 역공간(逆空間), Herzog & de Meuron's, Contemporary, Liminal Spa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 이후 산업으로부터 상업 자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현대사회는 하나의 사유체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도시공간과 장소가 더 이상 연속성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즉 모든 문화가 복잡하고 혼성적(Hybrid) 문화현상 성격을 띠면서 각 분야간 영역의 경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사회와 더불어 건축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근대 건축은 획일적이고 고정된 건축의 형태와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과학, 기술, 철학, 예술의 모든 문화가 복잡계(complex system)로 대변되는 다양성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다양성의 기반으로 현대공간에도 포스트 모던 건축, 해체주의 건축 등을 시발점으로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중간상태인 모호한 영역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공간의 다층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포착하는데는 빅터 터너의 역치성의 개념이 유용하리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저서 '제의에서 연극으로'에서 역치성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무질서한 상태의 공간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중심적인 과정에서 떨어져서 가장자리를 따라 중심과 접촉의 틈새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지점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후기구조주의라는 사유를 통한 다원화된 인식적 배경과 철학적 이론에 기대어 문화인류학의 역공간(Liminal space)-"문화와 경계,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1)-의 개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3-0012-671)

이 확산됨에 따라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간적 특성으로 개념의 교환, 순환, 재구조화하며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 현대사회의 역동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혼재된 영역의 흐름은 현대공간에서 경계적 모호성으로 역공간의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공간이 대안적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모든 문화에 참여하며 상호 교류를 하게되고,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건축가인 헤르조그 & 드 뮈론이 있다. Herzog & de Meuron's은 벽이나 개구부 등 변화하는 다-중심적인 공간을 자유로운 평면적 표현성과 잠재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관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시에 그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경계공간에 주목하며, 이것을 통해 형성되는 그들의 건축적 특성과 역공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공간개념의 특성과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현대공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고정적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경계 해체적 관점에서 후기구조주의 이론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근원적인 잠재성의 새로운 관점으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Herzog & de Meuron's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표현특성을 고찰하며, 현대공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코드의 새로운 유형을 수립하는데 역공간(逆空間)이론이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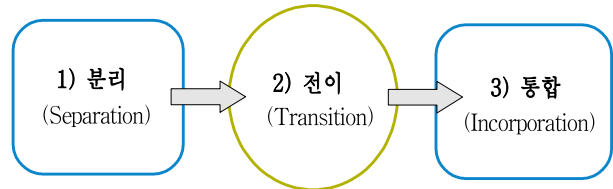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의 현상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역치성' (liminality)에 대해 선행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역공간이 현대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Herzog & de Meuron's 건축에 나타나는 '역공간(逆空間)' 개념을 중심으로 비가결성, 이질성, 탈중심적 특성 등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헤르조그 & 드 뮈론의 배경인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파악하고 건축적 사고와 개념에 기초하여 나타난 표현특성의 관계성을 역공간의 개념에 기반 하여 분석한다. 헤르조그 & 드 뮈론의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의 개념 변화를 역공간의 특성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역공간 개념과 사유적 접근

### 2.1. 역치성(Liminality) 및 역공간(逆空間)(Liminal Space) 개념

역치성(liminality)의 개념은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문화 전반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을 빌어 사회 문화적 상태나 조건으로부터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rites de passage)'<sup>2)</sup>로 판 헤네프(Van Gennep)가 제시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도식

판 헤네프의 3단계 특성은 이전의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나고, 전이는 어떤 결과로 생긴 문화적인 카테고리 상태의 속성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중간상태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치성(liminality)은 전이영역으로 통상적인 사회적 규범이 증지되는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기 위한 중간상태, 즉 경계면에서의 변화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역치성(liminality)개념의 역공간 형성은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 도시의 커피하우스나 레스토랑의 상업적 공간은 공적인 거리를 점유하면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생하도록 공간 기획이 이루어진 곳으로 사람과 상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공생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역치성 개념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구조주의로 전체적인 구조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틀에 맞춰 생각하고 모든 행위를 공식이나 규격화하는 전체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구조주의는 소쉬르(Fernand de Saussure)의 언어학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문학, 철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등 모든 인문 사회학 분야에 확산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구조주의는 실증주의의 변증법 등 서구 사유의 주요한 개념들과 대립하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주의다. 즉,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선 그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차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성과 자기 폐쇄적, 자기 유기적, 자기 통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구조주의란 말은 구조를 가정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 낸다는 전체위에 다수의 현상들에서 그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가리킨다.<sup>3)</sup> 사례로는 루이스 설리번(Louis H.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건축

1) Zukin, Sharon(1991) Landscape of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네덜란드 인류학자 아 노드 판 헤 네프(Arnold Van Gennep)

3)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2002, p.283

명제는 기능주의 원칙의 가장 극적인 표명이다. 그의 건축 개런티 빌딩(1896년)의 수직성을 강조하는 입면으로 인체의 구성처럼 각각 다리, 몸통, 그리고 머리의 '입면의 3단 논법'이 적용된 고층 건물이다. 공간은 주된 기능에 따라 수직적으로 세부분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태도는 개체를 전체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 이는 건축을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구조 내의 요소들의 관계성과 단순형태를 중시하지만 체계 외적인 부분의 차단으로 닫힌 구조로만 머물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구조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극복으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후기구조주의 사유체계가 등장했다. 후기구조주의는 유동적 사고와 확장되어지는 경계선에 의해 공과 사, 내부와 외부, 물질화 와 비 물질화 등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면서 역공간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경계에 대해 사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역공간과 후기구조주의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으로 기능주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 제프리 키피니스는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건축으로 도입하여 건축을 '역사적으로 이미 규정된 요소들을 재조합하거나 풀라주하는 방법<sup>4)</sup>과 건축형태의 저장고에 의존하는 대신 다이어그램적 작용에 의해 전체가 비위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역공간(逆空間)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첫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며 하나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둘째는 경계로서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에너지가 충만한 지점 이 된다. 셋째는 공간의 의미가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에 의해 새롭게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5)</sup>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라 할 수 있는 호미 바바(Homi Bhabha)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변화는 새롭고 잡종적이며 전환적인 정체성의 창출, 동질화가 불가능한 차이들의 협상, 그리고 경계적 존재들이 공존하는 역공간(逆空間)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역공간(逆空間)은 무질서한 경계면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장소 또는 다른 장소도 아닌, 하나의 분야 또는 다른 분야도 아닌, 그들 사이에서 -(in-between)의 제3의 공간(third space)을 말하는 것이다.

## 2.2. 후기 구조주의적 배경

60년대 후반까지 구조주의 철학은 전체적인 구조를 고적 관계, 즉 구조와 장식, 추상과 구상, 형식과 배경,

기능과 형태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규격화되고 간혀진 사고로 관계들의 한계를 보였다. 구조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불연속, 카오스, 욕망, 권력, 신체 같은 개념<sup>6)</sup>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한계를 후기 구조주의는 사회의 유동적이고 다변화된 개체들로 고정된 영역을 확장시키며 다원화된 사회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동시다발적 현상을 담고 있는 현대공간은 혼성적 특성을 갖고 공간에 활력을 주는 지형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명확한 경계를 지닌 공간은 혼성성의 관점에서 구조주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신체, 시간, 주름, 주체화 등을 다룸으로써 상호적 관계에서 나오는 파생성에 대한 사고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논리와 주장에 의해 혼합되고 확장되어 역공간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건축을 혼성적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모더니즘의 연장선과 초월'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도 로시(Aldo Rossi)의 'Teatro del mondo(1980년)' 사례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비대칭성으로 두 블록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같은 기능의 건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으면서도 다리로 연결되는 동시에 다른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즉 확실성을 탈피한 균형미에 대한 반발과 평면의 잠재적인 공간의 활용을 포함한 건축물 자체의 또 다른 잠재적인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이 현상은 실제로는 19세기 후반이후부터 가시화되어 포스트 모던시대에 극에 달한 현상이라고 샤론 주킨(Sharon Zukin)은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적 경향인 테리다의 해체론은 단일한 의미의 이분법으로 간주되어진 구조주의 공간을 넘어뜨리고 해체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테리다는 은유가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식을 가져준다고 설명하는데, 다른 가능한 세계에 공간을 인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경계를 무너뜨리기를 하며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게 되며, 무한한 기표의 텍스트에 주목한 테리다는 어떤 의미도, 어떤 공간도 고정되거나 확정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비가결성의 차원이 상호성에 의존하는 현대공간의 경향이 역공간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영역밖에 있는 공간, 범주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다원화된 사회를 유도하는 이질적 체계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가 발견됨을 인식하기 위한 실재 실현되는 배치의 절대적인 타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상이한 영역들의 관계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이질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여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헤테로토피아는 "표현 뒤에 열려 있는 비실재적이

4) Jeffrey Kipnis, 'Toward a New Architecture', Folding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1993, p.42

5) 조경진, 한소영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4호, 2011.8 p.51

6)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p.38

고 가상적인 공간에서 내 자신이 없는 나를 보며,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나는 내가 없는 바로 저 곳에 있게 되는 그런 곳"이다.<sup>7)</sup> 이것은 모든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볼 수 없는 공간까지 포함하여 역공간의 모습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리좀적 사고의 접근은 다양한 개체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자극하여 유동적이고 다변화된 형태의 '탈 중심화 된 공간'(decentralized space)이다. 탈 중심화의 경계 공간은 한정된 의미가 아닌 분자적인 켜의 확장으로 내·외부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들뢰즈는 주변의 세계, 즉 자극역에 그동안 지각하지 못했던 경계면에 새로운 존재로 관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탈 중심화된 다방향성의 공간은 역공간의 잠재성이 내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비가결성으로서의 차연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이항 대립적인 구도는 데리다의 논리와 주장에 의해 혼합되고, 확장되는 구도로 옮겨가게 된다. 자끄 데리다에 (Jacques Derrida, 1930-2004, 프랑스 철학자)의해 해체 이론의 핵심 키워드인 차연'은 다양한 기의가 발생하고, 그 기의가 또 다른 기표로 옮겨가는 재혼합의 사유로 옮겨가게 된다. 차연은 공간적 개념인 차이와 시간적 개념인 연기의 의미가 합쳐진 관계이다. 시간이 공간에 접목 되고, 공간이 시간에 통화되는 그런 세계가 차연의 영역이다. 차연의 철학은 양면성에 대하여 결정의 가능성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차연의 생리이다.<sup>8)</sup> 그러니까 데리다의 차연은 텍스트의 상호인용을 통해 경계가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언어를 통해 은유가 발생 되는데, 은유는 관계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언어는 'and'가 아니고 'AB, BA, ABC, C,' 등 관계와 경계를 호소하면서 확정되어진 언어로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가결성의 언어도 포함하여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상호 교차하여 텍스트의 무한한 연쇄성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러한 재혼합과 확장된 구도에서 '제3의 공간'의 특성으로 규정되는 역공간의 의미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다.

### (2) Heterotopia의 이질적 체계

철학자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호모토피아(homotopia)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he'te'ro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다른'이라는 뜻이고, topia는 '장소'를 뜻하는 topos에서 온 것이므로 he'te'rotopia는 어원적으로 '다른 속(other place)'를 의미한다.<sup>9)</sup> 호모토피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2진 논리

인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님(A or not A)'에 기초한 서구의 사고로 단순히 질서와 무질서, 이성과 비이성,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개념으로 기하학적, 심 상적 사고의 닫힌 구조를 의미하고 있다. 반면, 헤테로토피아는 정해진 공간의 기능을 가지면서 문화의 공시성으로 인해 매우 다른 '사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곳인 것이다. 푸코는 여기에서 상호 양립된 공간의 배치로 의미충돌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의미충돌은 이질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놀이의 행태로 발견되고 다원화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푸코는 현대의 공간개념을 사이트들의 사이적 관계로 보고 있는데, '사이트'는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개념적·가상적 장소 개념이고 실제 장소성을 갖는 개념은 '장소' 개념이라 하여 '공간(space)' '장소(place)' '사이트(site)'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또한 헤테로토피아는 각 문화의 성격에 따라 공간과 사이트들을 실제적인 장소 속에 병치하고 시간을 무한 축척시키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공간들을 병렬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충돌로 형성된 이질적인 공간은 경계선상에 존재함으로 비현실적이며 역설적인 역공간이 되는 것이다. 헤테로토피아의 원칙은 '실존하는 공간' 이고, 유토피아는 실존하지 않는 이상향의 공간인데, 여기서 푸코는 이 두 공간을 대립되는 이질성으로 보고 실존하는 역공간로 이야기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곳'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공간의 애매한 중간상태와 같은 문맥으로 서로 의미를 공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 'Rhizome'적 사고로의 탈중심적 접근

'리좀(Rhizome)'은 들뢰즈 와 가타리(Gilles Deleuze et Felix Guattari)의 저서「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2001)에 나오는 철학적 개념이다. 리좀 이라는 용어는 중심이 없는 뿌리를 가지고 사방으로 펼쳐지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리좀 사유(思惟)는 무작위적이며 그물망처럼 비규칙적인 혼돈구조로 자유롭게 모인 모든 요소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연결되고 가변적인 사유체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리좀 구성원리는 비위계적 연결접속(connection)원리, 다양체(multiplicity)원리,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로 구분<sup>11)</sup>된다. 첫째, 중심주의를 벗어난 탈중

10) 위의 책 pp.12-18. 푸코는 "우리는 지금 '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공간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이 한데 나란히 있는 '동시성(simultaneity)'과 '병렬성(juxtaposition)'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 공간 안에서 동시적으로 재현되고 도전 받고, 왜곡되고 있는 '반(反)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통해 이미 사회적 제도로서 확립된 기존의 배치와는 다른 배치를 기존 질서의 외부에 있는 대항 배치들이 사회적 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제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1)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pp.15-29

7) 전혜숙, Inter-spaces, 이화아트센터. 2005

8) 김형효, 데리다와 해체철학, 민음사, 1998, p.212

9)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p.11

심주의를 지향하는 비위계적 원리는 수목모델과 달리 단일 향이나 줄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복수성을 지닌다. 접속 가능한 이질적인 모든 공간에 중심성의 위계도 없고, 상·하 체계도 가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다양성이란 분자적인 경로로서 접속이 증가하면서 변이되는 가변체라 할 수 있다. 증가된 다양체의 본성은 전체의 의미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구조를 분리시키는 단절은 어떤 주어진 선과 연이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특정한 선 안에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선들 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근원적인 의미를 벗어나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다른 계열을 만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리즘적 사고로 중화된 영역은 흐름과 은유로 무경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유목적 사고를 가속화하고 있다. 개체의 상호작용과 다원화된 현대사회구조로의 진화는 다양성, 다원성, 나아가 이질성의 끊임없는 유동적 흐름으로 현대의 사고와 가치체계의 경계를 넘어 탈주를 시도하여 리즘적 사고의 표현의 공간으로 매스의 방향성, 단면의 수평성과 외장재의 탈 관습화 등 다양한 해석 가능한 형태의 도입으로 경계가 허물어진 역공간(Liminal Space)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 1> 후기구조주의 관점의 역공간 표현특성

구분	특성	내용
비가결성으로서의 차연	비가결성의 원리	경계와 모호성은 데리다의 차연적 관점을 통해 경계는 모호하고 혼합되어 확장되는 구조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적 체계	이질성 원리	서로 다른 차원의 '장소의 밖' 존재하는 특성
리즘적 사고로의 탈중심적 접근	탈중심화의 원리	근원적인 의미를 벗어나 또 다른 의미를 만들고 계열을 확립.

### 3. 역공간의 표현특성 연구

#### 3.1. 비가결성 원리

데리다의 차연적 관점에서 불확정성원리는 불확실(uncertainty)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결정의 뜻이다. 비결정이기 때문에 자유와 선택이 있고 여러 원인이나 동기가 보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헤르조그 & 드 뮈론의 건축은 표상적인 공간과 외관을 벗어나 수직적 종단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수평적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인 표현형식<sup>12)</sup>이 나타났다. 중심성을 벗어난 현대공간은 형태적 요소의 특성이 깨어진 '탈 균형, 탈 대칭'은 건축형태구성에 있어 비대칭인 균형의 추구를 의미한다. New Link Quai Santa Cruz de Tenerife

12) 김창현, Herzog & de Meuron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중심으로. 호서대 석사논문, 2004, p.43



<그림 2> New Link Quai Santa Cruz de Tenerife

은 보행자 저층의 건축물 지붕위를 걸어다니는 자유로운 평면 배치로 공공 공간과 보행자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다. 2개의중첩 된 플라자는 중심축 구성에서 벗어나 수직적 종과 수평적 이동이 동시에 실현되는 곳이다. 비유클리드적인 형태로중첩, 치환, 삽입, 회전하는 공간을 구성하여 동적느낌과 다양성을 부여한다. 기존의 건축개념을 깨뜨리고



<그림 3> Prada Aoyama Epicenter

있는 그들의 공간에서는 비정형성으로 인해 비틀리고 절단된 매스들을 평면, 단면, 입면등의 내·외부 요소들로 연속적으로 상호 관입시켜 형태적인 왜곡이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속에서 미결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며, 자유로운 형태표현의 욕구는 비정형형태의 공간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쿄 프라다 매장은 투명한 재료와 불투명한 재료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파사드의 패턴은 시간성에 따른 모호성으로 내, 외부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내부공간은 유동적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부에 있는 방문자들은 층간 구분을 느낄 수 없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허물어진 경계의 차연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

<표 2> 비가결성의 역공간 표현특성

구분	특성	내용
비가결성의 역공간	비대칭성	대칭성의 파괴와 새로운 운동시각의 형성
	비정형성	시간에 변화하는 유연성을 제공
	비 물성	규정할 수 없는 요소의 성격

#### 3.2. 이질성 원리

헤테로토피아 인식체계는 연속성을 띤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밀착시키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혼재된 양상으로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태적 이질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사건, 기능, 행위들이 혼합되는 프로그램적 이질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기 다른 기능과 공간이 서로 얽혀져있는 Cottbus 대학 도서관은 아홉개의 아메바와 같은 평면계

획으로 형태와 요소를 변형시켜 형태요소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다양한 공간이 제공된 이질적 내용의 혼합 건축물이다. 유리로 이루어진 곡면의 형태는 채광의 효과와 나선형 계단은 모든 바닥면과 연결되어 건물 내부에 시각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는



<그림 4> Cottbus University Library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그들의 공간적 복잡성은 전통적인 구조주의를 벗어나 형태 및 재료, 기능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혼성적이고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기술대학 도서관은 패턴사이로 투과되는 빛에 의해서 매년 다양하게 변화되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sup>13)</sup>

공간은 반복된 이미지의 골격 사용으로 외부와 외부, 내부와 내부에 병치되어 형태적 의미를 상실하며 혼돈된 공간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내용처럼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팝 이미지를 활용한 엔디워홀이나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들에게서 얻는 예술적 영감을 잘 알려진 재료와 형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건축의 상투성을 파괴하는 것에 적용했다.



<그림 5> Ikmz BTU Cottbus

<표 3> 이질성의 역공간 표현특성

구분	특성	내용
이질성의 역공간	복잡성	프로그램의 혼성으로 상호작용 발생
	모호성	예측하기 힘든 중심성 없는 공간
	병치성	형태적 의미상실로 혼돈된 공간 표현

### 3.3. 탈중심화의 원리

현대공간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영역을 인식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대안적 공간 또는 새로운 장소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탈중심화를 지향하고 있다. 탈중심화는 중심으로부터가 아닌 리즘적 실체로 인해 개별적 영역을 가로지르고 탈주하게 만들므로

써 그 영역을 넓혀 나가게 하는 전체적 과정이다.<sup>14)</sup> 리즘적 실천은 끊임없이 새로운 접속, 환경을 향해 뻗어나가 규범적 영역을 넘어서는 유목적인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Eberswalde Technical School Library

위 작품에서 보듯이 인식적 경계공간은 시각적 경계보다 관찰자와 대상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경계공간에 의해 2차적으로 사람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계공간으로 나타나고, 이 과정 속에서 사적인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이중적 영역의 통합으로 내부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은 경계공간을 통해 통합함으로써 내부공간에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였고 경계를 흐트리고 있다. 리즘적 사고에 의한 그들의 공간은 빛, 시간, 패턴 등의 다양한 레이어링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가져와서 확장된 영역들을 구현해 낸다. 시각과 빛에 따라 관찰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을 체험하며, 시지각을 자극하여 다시 촉감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의 건축은 이전시대와는 다른 의미화를 갖게 되며, 개방되고 확장되어 질 뿐만 아니라 무한한확장의 가능성을 가진다. 스위스 Allschwil에 위치한 Actelion Business Center 공간은 물질의 구성을 통해 지각을 조절하며 비위계적이고 비규칙적인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다원화된 공간을 구성한다.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그림 7> Actelion Business Center

게 형태에 따르는 내부공간은 자유롭고 가변적으로 계획되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의 무한한 접속이 가능하여 자유로이 떠도는 중심성없는 상호이질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중심성이 없는 Actelion Business Center는 공간의 위계를 없애므로 이질적인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고전적인 공간구성은 예정된 결과를 마주하거나 중심에 도달하며 공유공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13) 임수정, 헤르 조그 & 드 뮈른 의 건축적 사고와 개념에 기초한 공간표현방법에 관한 연구-틀뢰즈 의 '추상기계' 개념을 중심으로. - 건국대 석사논문, 2013년 8월 p.27

14) 허세연, CHORA의 경계적 신체(Liminal Bodies)에서 나타나는 탈영역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5년 2월 p.14

탈중심화 된 역공간은 매순간을 선택해야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공간의 분산으로 다양한 행태의 발견과 의도되지 않는 공간의 이용은 자유롭게 연결되고 유기적인 조합의 복합 공간으로 역공간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표 4> 탈중심화의 역공간 표현특성

구분	특성	내용
탈중심화의 역공간	탈경계성	내/외부가 상호 침투하여 경계를 흐림
	확장성	탈코드화된 시간적 사고의 경계확장
	비위계성	공간이 일관된 체계가 없는 탈 중심적 방식

### 3.4. 소결

위에서 나타난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공간을 통하여 현대공간의 3가지의 역공간 표현 특성과 적용된 건축요소, 표현요소의 표현방식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역공간의 건축적 표현양상

구분	적용된 건축요소	역공간의 표현방식
비가결성의 역공간	구조, 단면 형태, 재료	-패턴화된 외벽면과 내부의 동질화 -형태의 비정형성 -단면의 비위계성 -공간의 교차
이질성의 역공간	프로그램 동선, 외피	-프로그램의 이질적 혼성 -표피의 조형성 -상호작용성 -공간의 모호성
탈중심화의 역공간	평면, 단면, 외부환경	-단면의 비위계성 -공간의 통합화 -공간안의 공간 -경로의 다양성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공간에서는 비가결성의 역공간은 비정형성의 형태, 패턴화된 외벽과 내부의 동질화 등의 건축적요소의 특징이 드러나며, 이질성의 역공간에서는 프로그램의 이질적 혼성이 공간의 모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중심화의 역공간에서는 단면의 비위계성, 공간안의 공간, 경로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 공간 내에서의 역공간(逆空間)의 표현특성은 경계의 의미와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위와 사건을 유도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4. 종합분석

### 4.1.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개요

사례분석에 앞서 간략하게 그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헤르조그 & 드 뮤론은 유년시절 친구사이였다. 그들은 스위스 바젤에서 1950년 태어났고, 연방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8년 스위스에서 건축사무소를 열어 본격적으로 건축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건축은 초기부터 작가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다양한 건축언어로 표현했다. 이들은 1993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 3차 Any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건축가는 인용에 의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에 의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호와 같이 기능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벽이나 개구부,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질을 지닌 외관이라는 이념이다. 그래서 나의 건축물은 점점 현대적인 재료나 소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 그러나 손에 넣은 소재가 가장 현대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소재만을 즐겨 이용하는 일도 없다. 소재의 선택은 완전히 건축물의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개념이 없으면 설계자만 만족하는 결과를 맞는다.<sup>15)</sup> 그들의 공간은 엔디 워홀이나 이태리 건축가인 알도 로시(Aldo Rossi) 영향으로 고정적인 스타일이 있기 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형태적인 요소, 일상적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구조와 형태, 재료를 새로운 방식과 반복된 이미지의 변형으로 다른 형태와 다른 공간을 만들고 또 재생산 하였다. 앞에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대공간은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공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이분법적인 구조주의의 틀을 깨고 다변화되고 열려 있는 현대공간을 후기구조주의 철학가 ‘테리다’ ‘푸코’ ‘들뢰즈’ 이론으로 공과 사, 물질화 비 물질화 등의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역치성 개념이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공간을 해체적인 건축경향의 헤르조그 & 드 뮤론의 작품으로 분석하면 비가결성의 원리로 대칭이 파괴된 비대칭성, 시간과 우연에 따른 비정형성, 규정할 수 없는 요소의 비물질성으로 나타났다. 이질성의 역공간은 혼성적인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성, 혼돈된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모호성, 형태적 의미가 상실된 병치성로 나타났다. 리즘의 탈중심화 원리에서는 상호 침투된 공간은 탈경계성, 시간적 사고의 확장은 확장성, 중심성이 없는 공간은 비위계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합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공간에 나타나는 역공간의 특성 연구에 나타난 표현방법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15) 프레드릭 제임슨, Anyway / 방법의 논리, 현대건축사.1997, p.103

<표 6> 헤르조그 & 드 무론의 작품 종합분석

개요	이미지 및 도면	표현방법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Ricola European Factory & Storage Building		비가결성			●
		이질성	●	●	●
		탈중심화	●	●	
1993 / FRANCE 업무시설	-리콜라 유럽지부 공장은 재료의 잠재성의 현실화를 위한 기법을 사용하여 외부의 반복적인 나뭇잎 모양의 실크스크린은 빛의 변화에 따라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안과 내부를 결합함으로써 역공간이 형성된다. 물의 반사를 통한 측면벽의 콘크리트 물성 변화는 전형적인 벽이 아닌 흥미를 유발하는 경계면이 되어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 것이 오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확장성의 표면이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료의 반복적 사용이나 역설적인 표현은 재료에 의한 잠재성을 통해 물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물질과 본질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묘한 경계를 이룬다.				
Dominus Winery in Napa Valley		비가결성			●
		이질성		●	●
		탈중심화	●		
1995 / Yountville, USA 와인창고	-Dominus 와인창고는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료에 의한 개비언(gabion)벽을 구축하고 돌과 그 틈은 다양한 시각적 패턴을 구성한다. 또한 기본적인 서늘함과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빛의 투명도는 내부의 모호한 공간으로 외부에서 보여주는 패턴이 아닌 타자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타자적인 공간은 외부로부터 내부의 공간에는 자유를 제공하기도 하고 폐쇄성은 형태인식의 오브제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한 형태와 구조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형상으로 이 둘의 경계를 흐트리며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과 항상 연결된다. 그럼으로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별개인 것처럼 존재하다가도 사람들이 건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간을 지각하게 되며 모호성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이곳도 저곳도 아닌 공간이 되는 것이다.				
Eberswalde Technical School Library		비가결성			●
		이질성		●	●
		탈중심화		●	
1999 / Germany 교육시설	-Eberswalde 기술학교 도서관은 단순한 육면체 형태와 외부의 필름의 reel을 연상시키는 반복된 외피가 나타난다. 외부의 패턴은 문양을 만들어 자신의 원래 이미지를 잃어버린다. 즉 반복에 의한 이미지는 다른 것으로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미지가 중첩되어 낮에는 혼성적인 공간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빛에 의해 동질화된 공간은 빛의 영향에 따라 모호한 공간으로 표현된다. 이는 재료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중첩과 물성의 교란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결과는 외피에 대한 비물성과 공간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난다.				
Forum 2004 Building and Plaza		비가결성		●	
		이질성	●	●	
		탈중심화	●	●	●
2004 / Arcelona, Spain 복합 문화 공간	-퍼즐의 조각처럼 유기적인 삼각형 형태의 구조로 강당, 전시실, 로비와 작은 행정구역, 음식점들이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최대의 유연성으로 비정형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러친 구조의 가로지르는 오픈공간은 포럼 빌딩의 다양한 내·외부의 비위계적인 레벨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탈중력 기법의 구축방식은 역전을 이루어 무너질 것 같은 긴장감과 내부와 외부사이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결합하여 모호한 경계를 이루어 역공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둘러친 구조의 오픈공간과 울퉁불퉁한 스테인레스 스틸철판은 외부의 햇빛을 받아들여 때로는 물성을 숨기고, 때로는 반사재질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호성의 공간을 형성한다.				
De Young Museum		비가결성	●	●	●
		이질성	●		
		탈중심화		●	●
2006 / San Francisco, USA 박물관	-박물관 컬렉션 작품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들을 독립적이고 규정된 장소가 아닌 복합적인 장소로 여러갈래의 확장부를 갖는다. 3차원의 확장이라는 비정형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 중심부는 다양한 방향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천공된 형태는 레이어의 중첩으로 공원 안에 놓인 장소성의 확장성을 띄게 되며, 패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다양한 공간이 형성된다. 또한 평행하면서 서로 약간 틀어진 3개의 공간은 여러 놓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천공된 외피와 만나면서 끊임없이 변화된 제 3의 공간이 나타난다. 박물관의 장소적인 의미는 대지에 구조를 세워 물리적인 실재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주변과 박물관의 결합으로 이질성이 나타나게 되며, 장소라는 추상적 개념과 독특한 재료의 만남으로 역동적인 배치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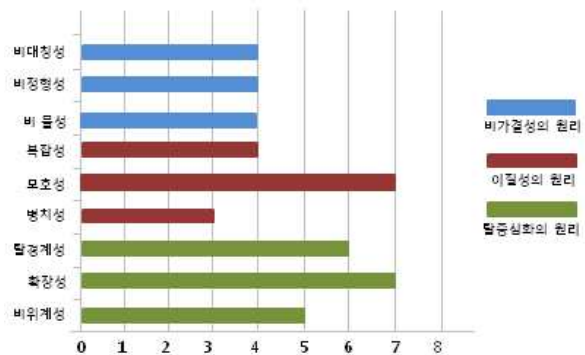
Caixa Forum-Madrid		<table border="1"> <thead> <tr> <th>비가결성</th> <th>비대칭성</th> <th>비정형성</th> <th>비물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이질성</th> <td>복잡성</td> <td>모호성</td> <td>병치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탈중심화</th> <td>탈경계성</td> <td>확장성</td> <td>비위계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2008 / Madrid, Spain 갤러리	<p>-오픈스페이스로 형성된 카이사 포럼은 반사재질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마드리드 모든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공적·사적공간이 허물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100년 전의 과거도 중력의 법칙에 따라 부유하는 건축으로 레이어의 중첩과 빛에 의한 다양한 변화의 병치된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외부공간에서 올라오는 기하학형태의 계단은 내부로 연결되어 각층마다 다른 마감의 재질과 색상은 이질적 의미 충돌로 다양한 높이의 역공간을 만든다. 또한 천정은 유기적인 패턴을 타공하여 무겁지 않은 지붕모양의 윤곽을 반영하여 벽돌로 이루어진 외피아래에 지붕이 덮인 모습으로 마치 길위에 떠 있는 모습처럼 구축의 방식을 역전 시킨다.</p>																									
1111 Lincoln Road		<table border="1"> <thead> <tr> <th>비가결성</th> <th>비대칭성</th> <th>비정형성</th> <th>비물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이질성</th> <td>복잡성</td> <td>모호성</td> <td>병치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탈중심화</th> <td>탈경계성</td> <td>확장성</td> <td>비위계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2010 / Miami Beach, USA 주차장	<p>-1111 Lincoln Road는 열대의 모더니즘을 재해석하여 완전히 개방된 콘크리트 구조이다. 전체적으로는 개방적인 파사드를 가진 형태의 주차공간만이 아닌 파티, 패션쇼, 콘서트 등 또 다른 이질성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직선적인 기둥이 아닌 불규칙적인 사선방향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비정형적인 형태의 균형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그림자가 생겨 이곳도 저곳도 아닌 모호성의 공간이 생긴다. 주차장 바닥판, 열, 표준 천정고로부터 2배, 3배의 이르는 천정고 및 경사로의 슬래브는 유기체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선택에 따라 위치와 형태는 서로 작용하는 성격의 다른 공간이 형성된다. 사적공간인 소규모 소매점 및 옥상의 레스토랑, 주차장과 대서양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 의 공적공간이 형성되면서 공간의 확장성이 나타나는 역공간이 형성된다.</p>																									
Miami Art Museum		<table border="1"> <thead> <tr> <th>비가결성</th> <th>비대칭성</th> <th>비정형성</th> <th>비물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이질성</th> <td>복잡성</td> <td>모호성</td> <td>병치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h>탈중심화</th> <td>탈경계성</td> <td>확장성</td> <td>비위계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비가결성	비대칭성	비정형성	비물성																							
	●	●																								
이질성	복잡성	모호성	병치성																							
	●	●																								
탈중심화	탈경계성	확장성	비위계성																							
	●	●	●																							
2013 / USA 전시시설	<p>-지역 해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구조는 건물의 안과 밖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공간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그늘과 테라스를 제공하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없어지며 외부의 해변공간을 끌어들이면서 확장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평면구성은 martix 레이아웃을 적용하며 방문자나 큐레이터간에 유연성이 작용하도록 했다. 이 미술관의 특별한 컨셉은 흘러가는 공간의 연속성, 중심성이 없는 평면으로 어떤 공간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비위계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박물관은 식재를 통한 주변 경계를 확장하는 기능과 친환경적인 공간 형성이 되도록 하며, 바깥에서 안으로, 더운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습한 곳에서 건조한 곳으로, 거리에서 미술로 오는 장소로 마이애미의 날씨와 성격에 따라 열린 공간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피 표현을 통하여 주변과 공원의 확장역할을 하여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공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p>																									

## 4.2. 소결

헤르조그 & 드 뮈른의 현대 건축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6>과 같으며, 비가결성의 원리는 비대칭성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났으며, 이질성의 원리는 모호성, 복잡성, 병치성이 사용자가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사용자의 움직임, 빛, 표면,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모호성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 요소 중에 병치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반복의 형태는 일상적 이미지들을 반복성을 통해 진부한 것 이상을 만들어 내는 이들의 건축형태 과정이므로 추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탈중심화의 원리는 확장성이 가장 잘 나타났으며 전형적인 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간이 생겨났다. 그들의 작품은 초기에는 자연재료와 외피의 새로운 해석으로 내부와 외부의 비물질적인 공간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비물질적인 공간은 구조, 형태, 재료 등의 요소들과 접목되어 사용자나 관찰자 모두에게 역공간의 공간 인식이 가능했고 이

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현대공간을 살펴보면 구축적 의미의 공간이 영역에 형성되기 보다는 경계선의 공간이 모호해지고 확장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 7> 헤르조그 & 드 뮈른의 종합분석 정리



## 5. 결론

본 연구는 헤르조그 & 드 뮤론의 작품들을 통해서 현대공간에서 대두되어지는 역공간의 현상에 대해 후기구조주의 배경의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건축적 표현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전통적인 구축과 재료들의 사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틀은 유지하되, 현대 건축의 흐름 속에서 실험적 시도를 통해 공간 범위의 확장, 정형적인 것의 탈피, 새로운 재료 등을 만들어 내고 생성하여 현대적 개념의 철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을 통하여 헤르조그 & 드 뮤론의 현대 건축물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성격을 지닌 역공간의 내·외부 경계가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 건축적 재료의 사용을 통한 기술적인 변형, 이미지, 사진, 텍스트 등 반복된 그래픽으로 공간의 안과 밖의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모호하게 만들어 건축물과 이용자들 간의 확정된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연속성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둘째, 빛, 시간, 패턴 등의 다양한 레이어링을 통해 외피에서는 이미지 프린팅 및 재료의 다양성을 사용자가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용자의 움직임과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잘 표현되었다. 표면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외피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인식이 나타나는 인터페이스화가 형성되었다.

셋째,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와 접목으로 본질적인 구축의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 입면과 배경사이의 경계는 배경 안에 건물이 조화되고, 건물은 배경이 조화되도록 하여 외부환경과 내부의 공간이 충분히 확장되고 흐름을 유발하도록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의 변형과 빛, 시간, 외피 등을 병합한 공간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로 역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공간의 특성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형태, 패턴, 재료, 프로그램 등 여러 양상의 혼합에 따라 역공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공간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계속 변화되는 그들의 역공간 요소는 현대공간에서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중요한 건축디자인의 표현특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1. Zukin, Sharon(1991) Landscape of Power,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이정우, 시플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3. 김형효, 데리다와 해체철학, 민음사, 1998
4. Heinz Kimmerle, 데리다 철학의 개론적 이해, 박상선 옮김, 제

- 1관 제3쇄, 서광사, 2003
5.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6. Gordana Fontana-Giusti, 건축가를 위한 푸코, 장정제 옮김, Spacetime 2013
7. 전혜숙, Inter-spaces, 이화아트센터, 2005
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9.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이기우·김익두 옮김, 현대미술사, 2011
10. 조경진, 한소영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 39권 4호, 2011
11. 김창현, Herzog & de Meuron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중심으로. 호서대 석사논문, 2004
12. 임수정,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건축적 사고와 개념에 기초한 공간표현방법에 관한 연구-들뢰즈의 '추상기계' 개념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13
13. 허세연, CHORA의 경계적신체(Liminal Bodies)에서 나타나는 탈영역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14. 최재원,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건축의 맥락적 구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5. 허정원, 이동에 의한 공간 인식과 정체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3
16. 송윤희,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텍토닉의 개념과 표현방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17. 진중찬, 입체복합문화시설을 통한 도심 밀집지역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3
18. 최기혁,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외피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헤르조그 & 드 뮤론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12
19. 임성훈, 공간에서 촉각적 감각과 깊이의 문제에 대하여, -헤르조그와 드 뮤론의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0권 2호(통권304호), 2014

[논문접수 : 2015. 06. 30]  
 [1차 심사 : 2015. 07. 20]  
 [2차 심사 : 2015. 07. 27]  
 [게재확정 : 2015. 08. 07]